논어 9편 자한 2장 · 원문·풀이

達巷黨人曰：「大哉孔子！博學而無所成名。」子聞之，謂門弟子曰：「吾何執？執御乎？執射乎？吾執御矣！」

독음 · 달항당인왈 대재공자 박학이무소성명 자문지 위문제자왈 오하집 집어호 집사호 오집어의

쉬운 풀이(요약) · 박학하지만 특정한 기술로 이름나지 않았다는 평에 공자는 자신이 무엇을 맡을지, 수레 몰기라도 하겠다고 유머 있게 답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達 통달할 달 달 / 巷 거리 항 항 / 黨 무리 당 당 / 人 사람 인

曰 가로 왈 / 大 클 대 대 / 哉 비로소 재 재 / 孔 구멍 공 공

子 아들 자 / 博 넓을 박 박 / 學 배울 학 / 而 말이을 이

無 없을 무 무 / 所 바 소 소 / 成 이룰 성 성 / 名 이름 명 명

聞 들을 문 문 / 之 갈 지 / 謂 고할 위 위 / 門 문 문 문

弟 아우 제 / 吾 자기 오 오 / 何 어찌 하 하 / 執 잡을 집 집

御 거느릴 어 어 / 乎 어조사 호 / 射 궁술 사 사 / 矣 어조사 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